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1 (January 2009) pp.136-145

남자 캐쥬얼 재킷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박 상 희* · 박 진 희+
안양과학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겸임교수* ·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Inner Structure of Men's Casual Jackets

Sanghee Park* · Jinhee Park+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Stylist, Anyang Technical College*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Textile & Clothing, Suwon University+
(투고일: 2008. 10. 14, 심사(수정)일: 2008. 12. 31, 게재확정일: 2008. 12. 31)

ABSTRACT

Growing needs of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ing creative thinking brought expanding of men's business wear market into more trendy and casual sector. As fashion trend of men's business wear has changes to casual jackets, there is need to study for the inner structure of casual jacket. The inner structure of casual jacket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tailored jackets so that they can provide more comforts, functionality and characteristic 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inner structure of casual jackets are made up by comparing jackets of various brands. In order to categorize the construction methods, where, how and what kind of lining, interlining, sleeve heads and shoulder pads are applied were studied. Although there are considerable varieties in making up methods, it could be concluded that casual jackets have lighter and less time and labour consuming inner structure, i.e. partial linings, fusible inter-linings, ready made sleeve heads and shoulder pads.

Key words: men's wear(남성복), casual jacket(캐주얼재킷), construction(제작), lining(안감), interlining(심지)

Corresponding author: Jinhee Park, e-mail: jinnyangel2000@hanmail.net

Ⅰ. 서론

최근 들어 경제침체와 오일가격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로 남성의 비즈니스 웨어가 보다 트랜디하고, 활동적이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남성복 시장은 정장이나 타운주도형에서 캐릭터 캐주얼로 관심이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복 정장에서 케릭터 정장이 시장 점유율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주얼 시장도 트랜드 캐주얼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2]

국내 남성복 업체들은 주 5일 근무, 월드컵 개최, 라이프스타일 변화, 전문직 종사자 증가,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캐주얼 의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상복으로서 캐주얼 재킷[3]의 브랜드 및 상품 개발을 차별화 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캐주얼 재킷은 클래식 정장과 달리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로 변형이 많으므로 동일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패턴 제작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심부자 외[4], 이은지, 심부자[5], 김미정, 조진숙[6], 서동애 외[7] 등의 원형 개발 및 패턴제작법에 관한 것과 김구자[8][9], 정명숙, 김구자[10] 등의 체형분류, 그리고 강여선, 최혜선[11] 등의 맞음새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김효숙[12], Cabrera Meyers[13], 곽연신[14] 등의 남성복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맞춤 양복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성복 캐주얼 재킷의 내부구조를 비교 연구하여, 보다 캐쥬얼 재킷 제작시에 간편한 내부 구성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국내·외 남성 캐주얼 재킷 수집

국내 남성복 내셔널 브랜드 중 20~3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캐주얼 재킷을 중심으로 봄·가을, 여름, 겨울 등 계절별로 각각 5벌씩 수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테일러드 재킷으로 여밈형태는 싱글 투 버튼(single two-buttons) 또는 쓰리 버튼(three-bottons)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국외 브랜드는 신사 정장류보다 캐릭터 정장류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중 30대가 선호하는 것을 선

〈표 1〉 연구 캐주얼 재킷

	브랜드	제조/수입 업체	계절
국내 브랜드	레노마(Renoma)	유로물산	여름
	브렌우드(Brentwood)	캠브릿지멤버스	여름
	던다스(dundas)	던다스	여름
	헤지스(Hazzys)	LG 패션	여름
	다반(Durban)	FAB INC	여름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주) 극동	봄·가을
	제이하스(J-Hass)	파크랜드	봄·가을
	엑시오 옴므(Exigo homme)	소도어패럴	봄·가을
	캠브리지멤버스(Cambrige members)	캠브릿지멤버스	봄·가을
	엠비오(M*VIO)	제일모직	봄·가을
	지이크(SIEG)	(주)신원	겨울
	라일 앤 스코트(Lyle & Scott)	메트로프로덕트	겨울
	지오옴므(Zio homme)	(주)유성 FNC	겨울
	본(BON)	(주)우성 I&C	겨울
	지오2(GGIO Ⅱ)	(주)코오롱	겨울
국외 브랜드	겐조(Kenzo)	쉬크 인터내셔날	봄·가을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신세계 인터내셔날	봄·가을

〈표 2〉 구성요소 및 분석 내용

구 성 요 소	분석 내용
안 감	계절별 안감 사용여부, 안감 형태 및 안감/겉감 합봉 방법
심 지(접착/비접착)	심지 종류, 심지 사용 부위 및 접착 겹수, 심지 형태
부자재(소매헤드/어깨패드) (sleeve head/ shoulder pad)	소매헤드 형태, 어깨패드의 두께 및 형태 사용 부자재의 제작 여부

〈표 3〉 계절별 안감 사용 부위

	여름					봄·가을					겨울					해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안감 없음					○												
앞판 일부	○																
앞판일부+뒷판일부+소매		○	○	○		○											
앞판전면+뒷판일부+소매								○									
앞판전면+뒷판전면+소매							○		○	○	○	○	○	○	○	○	○

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킷의 브랜드는 〈표 1〉과 같다.

2. 재킷의 내부구성방법 분석

수집된 재킷은 계절별에 따른 안감의 사용 여부와 안감 조합형태 및 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위별 패턴으로 분해하여 재킷 제작에 사용된 접착과 비접착 심지의 종류와 접착 위치에 따른 심지 형태 및 조합 등을 조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시판 남성 재킷 부자재 조사

남성용 부자재 전문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현 국내 남성복 의류업체에서 사용되는 부자재의 종류와 사용범위, 맞춤용 부자재 등을 비교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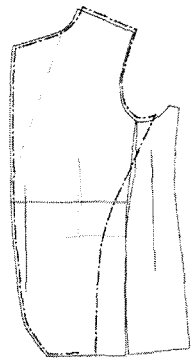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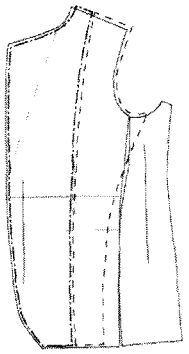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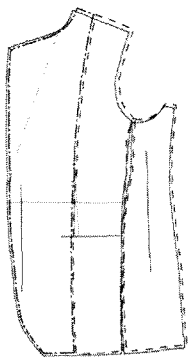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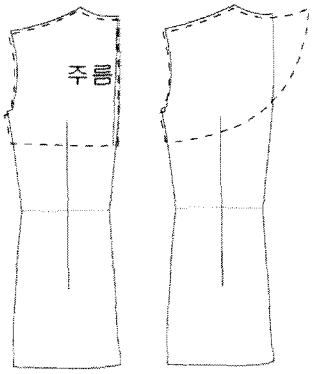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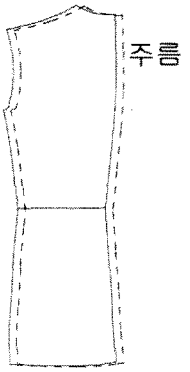
1. 안감 사용 부위 및 봉제 방법

재킷은 업체에 따라 계절별 상품을 구분하는데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봄·가을, 여름, 겨울로 구분 짓는다. 하복은 안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겉감만으로 제작하거나 옷감의 특성에 따라 앞판의 일부 또는 전체에 안감을 사용하고 뒷판은 허리위쪽의 반 분량만큼만 안감을 대는데 중심선에 주름을 넣은 것과 활동을 감안하여 좌우에 대칭으로 중심의 일부가 겹친 아치형의 안감을 대었다. 춘추복의 경우 앞판 전체에 안감을 대고 뒷판은 일부 또는 전체에 안감을 대고 있는데 이는 냉·난방시설의 발달과 함께 봄, 가을의 시기가 짧아져 일부는 하복의 형태로 일부는 동복 형태로 안감을 사용하고 있다. 동복은 앞·뒤판 전체에 안감을 부착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보온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재킷의 안감과 안단의 연결부위 중 윗가슴 부분에 주름을 넣어 동작시의 여유분을 주고 있다. 하복을 제외한 모든 재킷의 소매는 안감을 대고 전체 안감이 들어간 춘추복과 동복은 왼쪽 소매안감에 창구멍을 내어 뒤집고 상침으로 마감한다. 또한 안감과 겉감을 고정하는 방법은 소매 진동을 안감과 겉감 소매 시접을 함께 봉제하거나 또는 진동이나 윗 소매, 어깨 패드부분 등 일부분에 안감을 가로, 세로 3×5cm로 잘라 시접끼리 엮어주어 실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표 3〉은 수집된 재킷의 계절별 안감 사용 부위를 나타낸 것으로 봄·가을용은 업체에 따라 간절기용으로 여름시즌 또는 겨울시즌에도 착용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안감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는 과거와 달리 계절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

〈표 4〉 남자 캐주얼재킷 안감 형태

(_____:안단, _ _ _ _:안감)

	안감이 없는 경우	안감이 일부만 있는 경우	안감이 모두 있는 경우
앞			
뒤			
	앞판의 안감이 없고 안단이 안감이 있는 경우보다 조금 크다. 얇지 않은 여름용 면 재킷일 경우가 많다.	앞판 일부 또는 앞판 전면에 안감이 대어진 경우는 뒷판은 등상부만 안감을 댄다. 뒷중심에 주름을 잡거나 죄우를 분리하여 뒷중심에서 겹쳐지게 하기도 한다. 여름용 또는 봄·가을용 모두에 사용된다.	앞판과 뒤판 전체에 옷감을 대는 경우는 춘추복, 추동복의 경우에 일반적이다. 뒷중심과 상동에 주름을 잡아준다. 겨울용과 봄·가을용에 사용된다.

후로 변화되고 냉·난방시설의 발달로 인해 재킷 두께감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남자 캐주얼 재킷의 안감 형태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여름용 재킷에 한하며 일반적으로는 일부만 안감을 사용하고 있었다. 겨울용 재킷은 전체적으로 안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봄·가을 재킷은 안감을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봄·가을 재킷의 경우 간절기용으로 초봄과 늦봄, 초가을과 늦가을용으로 구분되어 제작되기 때문에 안감사용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심지 사용 부위 및 봉제 방법

대부분의 기성복 캐주얼 재킷의 경우에는 남성용 접착심지를 주로 사용하고 라펠부분에 비접착식 두꺼운 모심은 사용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 모심과 뻣뻣한 아사심, 융을 조합한 기성화된 몸판 심지를 가슴부분에 사용하기도하지만 라펠부분에는 모심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표 5〉 계절별 심지 및 부자재 사용 현황

	국내															해외	
	여름					봄 가을					겨울					봄가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안단 전체 접착심지	○	○		○	○	○	○	○	○	○	○	○	○	○	○	○	○
앞판 접착심지		○			○	○		○	○	○		○	○	○			
앞판 비접착 및 접착심지	○			○			○				○				○	○	○
옆판 전체 접착심지			○	○										○			
옆판 진동 접착심지	○		○	○		○	○			○	○	○	○		○		○
뒷판 진동 접착심지				○			○		○								
뒷판 목둘레 접착심지							○										
뒷판 목둘레 어깨 접착심지						○											
뒷판 목둘레 어깨 진동접착심지	○		○							○	○	○	○		○	○	○
소매 밑단 접착심지	○	○				○	○	○	○	○	○	○	○	○	○	○	○
몸판 밑단 접착심지		○	○	○		○	○	○	○	○	○	○	○	○	○	○	○
칼라 접착심지		○	○	○	○	○	○	○	○	○	○	○	○	○	○	○	○
칼라 비접착심지	○																
밑칼라 감	○						○								○	○	
소매헤드(일반a,제작b)	a	a		b	a	a	a	a	b		a	a	b	b	b	b	b
어깨패드(각패드a, 반 래글런b)	b	b	a	a		b	a	b	a	b	a	b	b	a	b	b	b
진동둘레 접착 테잎심지	○		○	○		○		○	○	○	○	○	○	○	○	○	
진동둘레 비접착 테잎심지			○	○		○			○	○	○	○	○		○	○	
몸판 롤라인 (비)접착테잎	○	○	(○)	○		○	○	○		○	○		○	○	○	○	○

디자인이나 옷감의 두께에 따라 심지의 두께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필요부분에는 접착 심지를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너비로 잘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시판되는 테이프 심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몸판의 소매진동 둘레에는 접착식 테이프 심지와 함께 신축성이 거의 없는 폭 5mm이하의 면 라인 테이프을 시접에 한 번 더 봉제하였다.

소매 단과 밑단에도 단용 접착심지를 사용하였으며 칼라의 경우 겉칼라와 밑칼라를 같은 감으로 하고 식서 방향에 맞추어 접착용 심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만이 정장 신사복과 같은 밑칼라 감을 사용하고 비접착식 심지를 사용하였다.

〈표 5〉는 계절별로 분류한 심지 및 부자재의 사용 현황으로 대부분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만 모심을 라펠부분을 제외한 몸판의 가슴 부분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모심의 대용으로 두꺼운 아사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두 시판용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접착심지를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남자 캐쥬얼 재킷은 안단과 앞판의 전체에, 옆판의 경우 진동부분과 밑단에, 뒷판의 경우 목둘레, 어깨 그리고 진동부분, 밑단의 완성선에 걸쳐 4~5cm 폭의 접착심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칼라와 소매 밑단에도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몸판의 롤 라인에는 약 2cm 폭의 라인 테잎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외 브랜드의 캐주얼 재킷은 국내브랜드에 비해 심지의 사용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두 브랜드 모두 안단과 앞판 전면에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두께감있는 접착심지를 사용한다. 또한 비접착식 모심 또는 캔버스직물을 가슴 부분에 심지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를 부착하는 위치는 국내브랜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심지의 사용량은 더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안단의 시접을 앞판의 심지에 반드시 고정하는데 이때 심지위에 얇은 테이프를 덧대고 숨뜨기와 함께 천과 천을 붙여주는 레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시접이 여러 겹 겹쳐져 부피감이 큰 부분에도 접착용 레진을 사용하였다.

계절별로 비교해 볼 때 안감의 사용위치에 따라 심지의 부착형태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

〈표 6〉 2중 접착 심지 사용부위 형태

사용부위 \ 재킷종류		국내															해외	
		봄 가을					여름					겨울					봄가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안단	라펠부분								○									○
	고지선부분		○															
앞판	어깨부분	○				○												
	고지선부분									○		○	○					
	몸판가슴부분	○					○	○					○					
	라펠부분							○										
	여밈외곽부분		○			○			○	○					○	○	○	
	롤라인 및 라펠외곽선					○	○			○		○		○		○		
	진동둘레			○	○	○			○	○			○	○	○	○		
옆판	진동둘레		○	○	○	○	○		○				○	○	○	○		
뒷판	목둘레		○				○					○				○		○
	진동둘레		○	○			○		○			○	○			○	○	
소매	소매산부분																	
	소매밑단						○											○
칼라	스탠드부분		○	○				○		○			○					

세하지만 두께의 차이도 약간씩 보이고 있다. 국내브랜드와 국외 브랜드의 봄·가을 제품을 비교해 볼 때 국외브랜드의 심지가 좀 더 부드럽고 두께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자 캐쥬얼 재킷은 많은 부분에 접착심지나 비접착심지를 2중 또는 3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판되는 접착 라인 테잎 심지나 일반심지를 원하는 폭으로 잘라 그 용도에 따라 식서, 바이어스, 비바이어스 테잎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 6〉는 접착심지를 2중으로 사용하는 부위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진동둘레선과 라펠과 여밈의 외곽선에 주로 사용하여 강도를 높이는 용도나 자연스런 실루엣을 위해 사용되었다. 2중 접착 심지가 사용된 위치는 〈표 7〉에 그림으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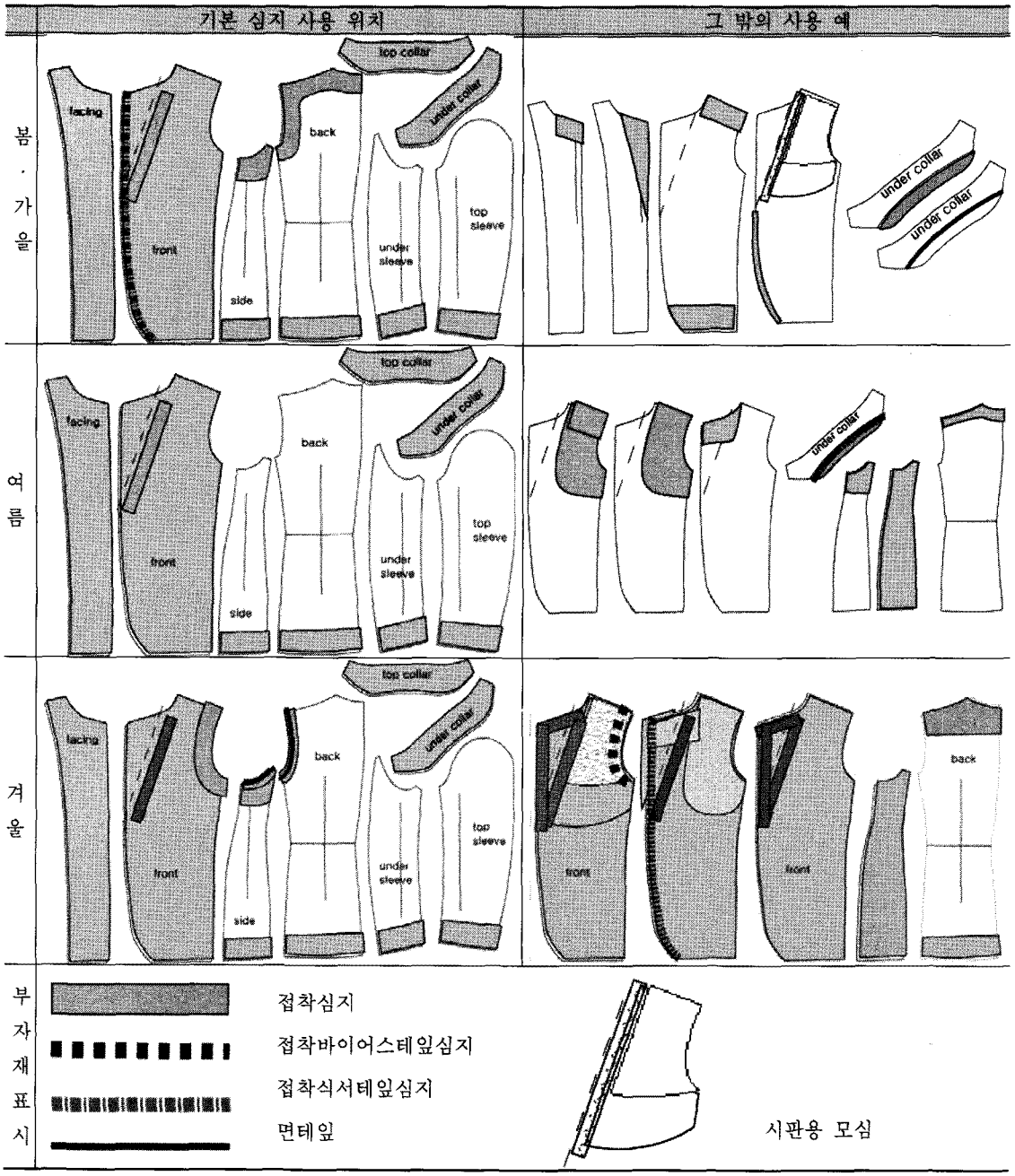
남성 캐쥬얼 재킷은 앞서 언급했듯이 안단과 앞판에 전체에 접착심지를 부착하고 각 패턴의 밑단과 진동둘레, 목둘레 등에 접착 심지를 사용하고 몸판의 롤라인에 2cm 폭의 식서 라인 테잎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7〉은 접착심지사용 부분을 패턴에 형태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계절별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위치와 업체에 따라 2겹 또는 사용위치가 약간씩 다른 형태를 모두 나열하였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가 필요한 부분과 실루엣을 나타내는 위치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단, 앞판, 그리고 칼라와 같은 경우는 겉감전체에 심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매단과 밑단의 경우 시접전체와 완성선에서 1~1.5cm 들어간 부분에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어깨, 진동 둘레의 경우는 시접전체와 완성선에서 3~4cm 들어온 부분에 접착심지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테잎심지의 경우는 완성선에 걸쳐서 심지를 부착함으로서 활동시 받는 압력에 잘 견디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외관형성에 중요한 라펠부분, 칼라의 롤라인 부분에도 접착 또는 일반 테잎심지를 부착하였다.

3. 소매헤드 및 어깨패드 사용형태

소매 헤드도 그 형태나 두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형태와 유사한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판되는 형태에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업체별로 제품에 적절한 소매헤드를 대량 주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소매헤드는 모심과 부직포로 구성되는데 이들 수량과 형태에 따라 그 두께가 달라지고 소매산 부분 외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부자재이다. 국내 브랜드에서 사

〈표 7〉 계절별 캐쥬얼 재킷의 접착 심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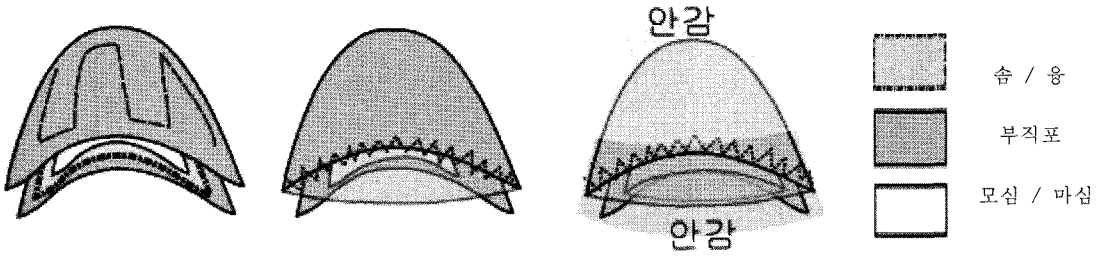
용되는 것은 해외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부피감이 적고 해외브랜드는 재킷에 사용되는 모심과 부직포의 수량이 많다.(표 8)

어깨 패드는 트랜드의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와 달리 패드의 두께가 얇아져 6mm~8mm정도를 주로 사용하거나 캐쥬얼 재킷의 경우 사용하지 않기

〈표 8〉 사용 소매헤드의 형태

(□:모심 ▨:부직포)

국내 브랜드	해외브랜드
부직포	부직포
부직포 2겹	
부직포 2겹	부직포
부직포	



각 패 드　　반 래글런 패드　　안감을 싼 반 래글런패드

〈그림 1〉 사용 어깨패드의 형태

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패드는 주로 부직포와 솜의 구성으로 되는데 부직포 사이에 솜을 넣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그 솜의 겹 수에 따라 두께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트랜드는 얇고 사이즈가 좀 작은 래글런 패드 즉, 반 래글런 패드라고 하는 어깨패드를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편안함과 각지지 않고 어깨선을 살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림 1) 보다 얇은 반 래글런 패드는 얇은 부직포 2겹과 모심지 만으로도 만들어지며 안감이 재킷의 일부에만 사용되었을 경우 그 표면에 안감으로 싸서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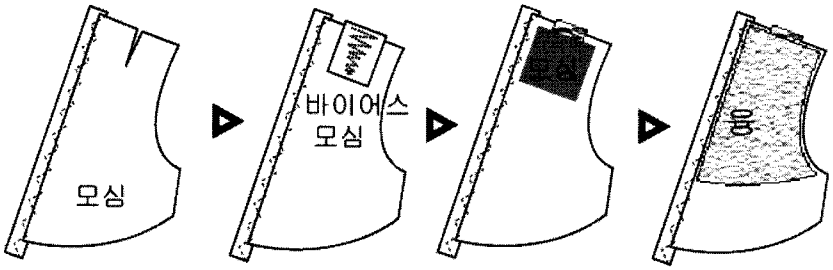
4. 시판 부자재 현황

1) 몸판용 심지

몸판 심지의 경우 일반 기성복 업체는 접착용과 기성화된 비접착 심지를 주로 사용한다. 접착용은 몸판 전면에 사용하는 것과 부분용으로서 소매단과 밑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몸판용 전체 심지는 polyster 100%와 polyester 50%와 면 혼방 50%로 나누어지며 옷감의 두께에 따라 심지의 두께를 선택 사용한다.

이외에 몸판용 심지로는 접착 모심과 비접착 모심이 있는데, 이는 면과 모의 제직으로 모는 인모, 양모, 낙타모 등을 사용하고 그 소재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또한 모심과 융으로만 조합된 기성화 몸판심지도 시판되는데 이는 맞춤양복의 몸판심지를 간소한 시킨 형태로 〈그림 2〉에서 보여진다.

모심지와 면 테이프를 새발뜨기와 같은 봉제로 연결하고 어깨부분은 절개하고 살짝 벌린 후에 조금 뻣뻣한 모심을 대고 지그재그로 봉제한다. 어깨 바로 아래쪽에 모심이나 면 캔버스를 바이어스로 잘라 놓



〈그림 2〉 기성화된 시판 모심

〈그림 3〉 일반 시판용 소매헤드

〈그림 4〉 맞춤 제작용 소매헤드

고 그 위에 용을 놓는다. 용과 바닥의 모심이 팔자뜨기 또는 숨뜨기로 고정되면서 그 사이의 사각 모심도 고정된다.

부분용 심지는 폴리에스터 100%와 면 100%로 나누어지며 몸판용 접착심과 마찬가지로 옷감의 두께에 따라 심지의 두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면 심지의 경우 세탁 후 줄어드는 단점으로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며 polyester의 경우 물세탁이 가능하다. 면 심지는 폴리에스터보다 좀 더 두께감이 있어 형태안정성이 우수하다. 칼라용 심지는 몸판에 사용하는 접착심지를 사용하거나 칼라용 비접착 심지를 사용하는데 면 또는 마로 제작되어있다.

2) 소매헤드

기성복용으로 시판되는 소매헤드는 형태가 각기 다른 모심 3장과 부직포 1장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매와 봉제되는 부분은 입체적인 형태가 아닌 직선의 형태를 띤다. 단, 일부 맞춤복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접목한 다양한 소매헤드들을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 어깨패드

시판용 어깨 패드는 각 패드의 경우 4mm~23mm까지 두께가 다양하며 대부분은 부직포나 얇은 솜으로 제작되어 있다. 부직포의 두께는 장당 2mm 정도로 부직포의 수량으로 패드의 두께가 결정된다. 유행경향에 따라 패드의 두께가 달라지며 현재는 6~8mm가 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래글런 패드도 어깨끝을 감싸는 크기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는 6mm 정도의 것이 많이 사용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시판 남성용 캐쥬얼 재킷의 내부구조 및 부자재 사용현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 캐쥬얼 재킷 브랜드 15종을 계절별로 봄·가을, 여름, 겨울로 분류, 구입하여 안감, 심지, 소매해드, 어깨 패드 등의 부착 부위, 형태, 적용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남성 캐주얼 재킷은 계절별에 따라 안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앞판 전면과 뒤판의 상단부분, 앞판의 일부와 뒤판의 상단부분, 그리고 앞뒤판 전체에 안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은 계절에 따른 보온성 및 쾌적감을 위한 것으로 필요 및 용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시판되는 남성 캐주얼 재킷은 일반 여성복과 같이 접착용 심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접착심지는 일반심지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남성 재킷용으로 제작

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가슴부분에 모심과 융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기성화된 심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 제작 방식에 비해, 심지 사용이 간소화되고 수작업부분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매헤드는 부직포와 모심으로 제작되는데 시판용은 한 가지 형태를 띠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킷들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각 업체가 디자인, 가격, 소량/대량생산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브랜드에 적절한 부자재를 주문하여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어깨 패드는 과거에 비해 8mm이하의 얇은 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패드 보다는 반라그랑 패드를 주로 사용하고 이들은 부직포와 솜으로 제작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시판되는 남성복 부자재가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심지는 접착심지를 주로 사용하며 그 종류와 제작 방법에서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었다. 안단과 앞판 전면, 그리고 진동둘레와 각 패턴의 밑단과 트임 부분, 그리고 칼라에는 접착심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진동둘레의 경우, 2중의 접착심지는 물론 늘어나지 않는 얇은 비접착 면테잎을 봉제하여 고정하여 진동둘레의 처짐을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강도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중요한 부분, 즉 라펠이나 뒷목둘레, 어깨 등에는 부분적으로 접착심지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판 남자 캐주얼 재킷의 제작방법을 고찰하여 간소화된 남성복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의복구성학적 측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며 나아가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화된 남자 캐주얼 재킷 제작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박진영, 손희순 (2000). 성인 남성의 신사복 착용 실태 조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4*(3), pp. 35-45.
2) TEXJOURNAL(2000.1.). *2000 남성복 호황에 도전*, pp. 116~117.
3) 김미정, 조진숙 (2006). 남성 캐주얼 재킷 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2), pp. 207-220.
4) 심부자, 이은지, 서추연 (2007). 남성복 피티드 재킷 패턴 설계를 위한 패턴비교분석 및 착의평가.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1*(5), pp. 35-50.
5) 이은지, 심부자 (2007). 국내남성복 업체의 기본 원형 사용현황과 남성복 상의 원형비교.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1*(4), pp. 120-134.
6) 김미정, 조진숙. *앞의 책*, pp. 207-220.
7) 서동애, 오설영, 천종숙 (2006). 남성복 재킷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패턴 제작방법연구. *복식문화연구, 14*(1), pp. 40-47.
8) 김구자 (1995).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분류 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19*(6), pp. 924-932.
9) 김구자 (1999). 신사복 상의 설계를 위한 체형의 호칭분류와 사이즈 스팩. *한국의류학회지, 23*(8), pp. 1240-1247.
10) 김구자, 정명숙 (2001). 신사복의 패턴 그레이딩을 위한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6), pp. 1069-1078.
11) 강여선, 최혜선 (2005).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pp. 91-102.
12) 김효숙 (1995). *고급봉제 방법*. 서울: 경춘사.
13) Meyers, Cabrera (1983). *Classic Tailoring Techniques*. NY:Fairchild Publication
14) 곽연신 (2008). *남성복 테일러링-맞춤양복의 제작과정*. 서울: 경춘사.